

우주는 유한입니까 무한입니까?

-- 형이상학과 물리학 그리고 불교

2009. 10. 07. (수) | 소광섭(서울대)

1. 머리말

인간과 자연은 원래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연구하는 인문사회학이나 자연을 연구하는 이공학이나 한 뿌리이고 크게 보면 하나의 목표 즉, 인간과 자연의 근본을 알고자 하는 지성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기술의 가속적 발전과 학문의 다양한 분화로 가치와 의미만 좇는 공부길은 많은 반면에 뿌리를 보아 전체를 통섭하는 공부길은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인문사회학도는 과학의 문맹으로 이공학도는 전공의 기술적 내용에 매몰된 지(知)적 공돌이로 길러지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지성인이라면 마땅히 피상적이고 파편적인 전문내용에만 파묻혀서 말고 인간과 자연의 근원적 이해를 위한 교양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을 연구하는 철학을 형이상학이라고 한다. 우주 만물은 모두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보는 신학적 주장이나 우주 만유의 본원 [本源, 본래 나온 곳]을 깨쳐야한다고 가르치는 불교학(佛敎學)적 주장은 형이상학적 진술에 속하며 따라서 형이상학과 종교는 밀접하다. 또한 이러한 존재들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영혼 등의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심리학도 형이상학의 중요 부분인 동시에 종교의 핵심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궁극적 진리는 우주만유와 모든 생명의 근본이므로, 이를 언어와 논리에 바탕한 사색으로 연마하면 형이상학이고. 관찰과 실험에 바탕하여 수학으로 연구하면 과학이고, 믿음과 수행에 바탕한 직관으로 깨쳐나가면 종교이다. 그러므로 형이상학과 과학과 종교는 궁극적 진리를 찾고자하는 인간 노력의 다른 형태일 뿐 그 목표는 같은 것이라 하겠다. 이 중 우주는 과학 중 물리학 (또는 천문학)의 중요 연구대상이며, 종교 중에는 불교에서 특히 정치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우주에 관한 형이상학과 물리학 그리고 불교의 관점들을 비교하여 다루고자 한다.

우주에 대한 관심은 밤하늘의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바라본 원시인들부터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우주전쟁을 영화로 보는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만물을 안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하는 의문도 누구나 한번쯤 떠올렸을 법하다. 옛날 우리나라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배웠을 천자문(千字文)의 서두는 “천지현황(天地玄黃) 우주홍황(宇宙洪荒)”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우주는 크고 광막함을 가르치는 것으로 어린이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클까? 이 질문을 좀 더 세련되게 하면 우주는 한없이 큰가, 아니면 어떤 크기로 한정된 것인가라고 무한과 유한 즉 무유의 논리적 질문으로 다듬어진다. 그래서 ‘우주는 유한입니까 무한입니까?’란 질문이 되며, 이는 철학적 질문으로 형이상학의 과제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갖는 이 의문을 형이상학적으로 가장 깊게 다룬 철학자 중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이다. 그의 불후의 명저 『순수이성비판』에서 ‘우주론적 이율배반’으로 논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칸트의 이 ‘이율배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칸트의 논의는 실로 그 논리적 정교함과 그 전체적 틀의 크기와 공교함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나오면서 형이상학적 논의의 한계와 오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시도하려 한다. 수학적 바탕이 없이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어떤 이유로 칸트같은 대철학자까지도 오류에 빠질 수 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주는 유한인가 무한인가 하는 논의는 18세기 칸트도 오류를 범할 정도의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이천년도 넘는 그 옛날 부처님 당시의 외도나 제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같은 질문을 했으니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했어야 할까? 오늘날 물리학자가 상대성이론을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보통사람은 고개는 끄덕이지만 실제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쳐줄 수 있었을까? 이 문제는 ‘부처님의 침묵’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전불교’에서 우주의 유한과 무한에 대하여 왜 부처님은 침묵하셨는지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칸트와 ‘이율배반’

칸트는 그리스 이래 시작된 서구의 모든 철학적 사조를 종합하고 집대성하여 새로운 비판 철학의 세계를 열음으로써 그 이후 서구철학의 발원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의 대표적 저술은 '순수이성비판'으로 크게 나눠 시간과 공간, 이성 (또는 지성, understanding)과 범주, 이성적 사고의 비판, 이렇게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3부분 각각이 그의 독창적이고 정교한 철학적 대업적을 보여준다.

먼저 시간과 공간론에서는 기존의 객관적 존재로서의 시간과 공간을 부정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인식구조에 내재해 있고, 이 내재하는 사고의 틀로써 자연현상에 질서를 부여하여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인식하는 틀이지 객관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 관점을 '코페르니쿠스적 대 선회'라고 불렀고, 그만큼 획기적인 관점의 대전환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나 그의 내재적 시간공간론은 상대성이론에서도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어쩌면 미래의 물리학과 심리학의 통합에서나 이해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인지 모른다.

그의 범주론은 우리의 지적 사고의 기본은 경험의 단순한 집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원래부터 내재해 있는 기본 틀이 있어서 인식 경험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기본 틀이 없다면 처음부터 이 세상을 지적으로 알고 체계적으로 경험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는 이 지적사고의 기본 틀을 범주라고 하였으며, 12개의 범주가 있다. 시간과 공간이 사물의 형태적 인식의 틀이라면, 범주는 현상을 인식하는 사고의 틀이라고 하겠다.

공간과 범주가 세계를 인식하는 경험적 사고의 틀인데, 인간은 이 틀의 한계를 넘어 경험할 수 없는 것까지 상상의 나래를 펴고 날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순수이성이며, 이른바 형이상학적 주제인 신, 영혼, 우주는 바로 순수이성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들은 경험적 인식의 경계를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야기시킬 뿐이란 것이 '순수이성비판'에서 '비판 (critique)'이란 개념이 나오는 소이이다. 예를 들어 서구신학의 오랜 형이상학적 주제인 '신의 존재증명'은 순수이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결코 존재증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영혼의 영속성 문제도 비슷한 비판대상이다.

'우주는 유한인가 무한인가?'하는 질문도 순수이성이 갖고 있는 자체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어느 쪽 답도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었으며, 이것이 이른바 '순수이성의 이율배반 (antinomy of pure reason)'이다. 4종의 이율배반이 있는데 그 중의 제 1종이 바로 우주의 유한무한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 상호 배반되는 답이 모두 가능하며, 이 모순성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순수이성적 사고가 경험세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답은 다음과 같다.

정립 (Thesis): 우주는 시간적으로 태초가 있으며,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다.

반정립 (Antithesis): 우주는 태초도 없고, 공간적 한계가 없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무한하다.

서로 모순되는 두 주장에 각각 증명이 뒤따른다. 논의를 간략히 하기 위하여 공간에 관한 것만 다루기로 하겠다.

정립 (Thesis)에 대한 증명: 이 우주가 무한하다면 동시에 존재하는 부분들의 종합을 계기적으로 해나가는데 무한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무한히 많은 사물의 집합을 총체적인 하나로 보는 것, 즉 동시에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동시'에 주어진다든 매우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 이 증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정립 (Antithesis)에 대한 증명: 이 우주가 유한이라면, 우주 밖에 텅 빈 무한한 공간이 있어야한다. 우주 내 사물과 우주 밖의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은 우주가 총체라는 정의 자체와 모순이 된다.

이 두 가지 증명은 전문적인 칸트의 사고체계를 알아야 되도록 난해하게 쓰여있는 것을 약간 쉽게 변형 요약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알아보기 어려움은 어쩔 수 없다 하겠다. 요컨대 정립 (Thesis)은 우주가 무한하다고 하면 말이 안되므로 우주는 유한하다고 증명하고, 반정립 (Antithesis)은 우주가 유한하다고 하면 역시 말이 안되므로 우주는 무한하다고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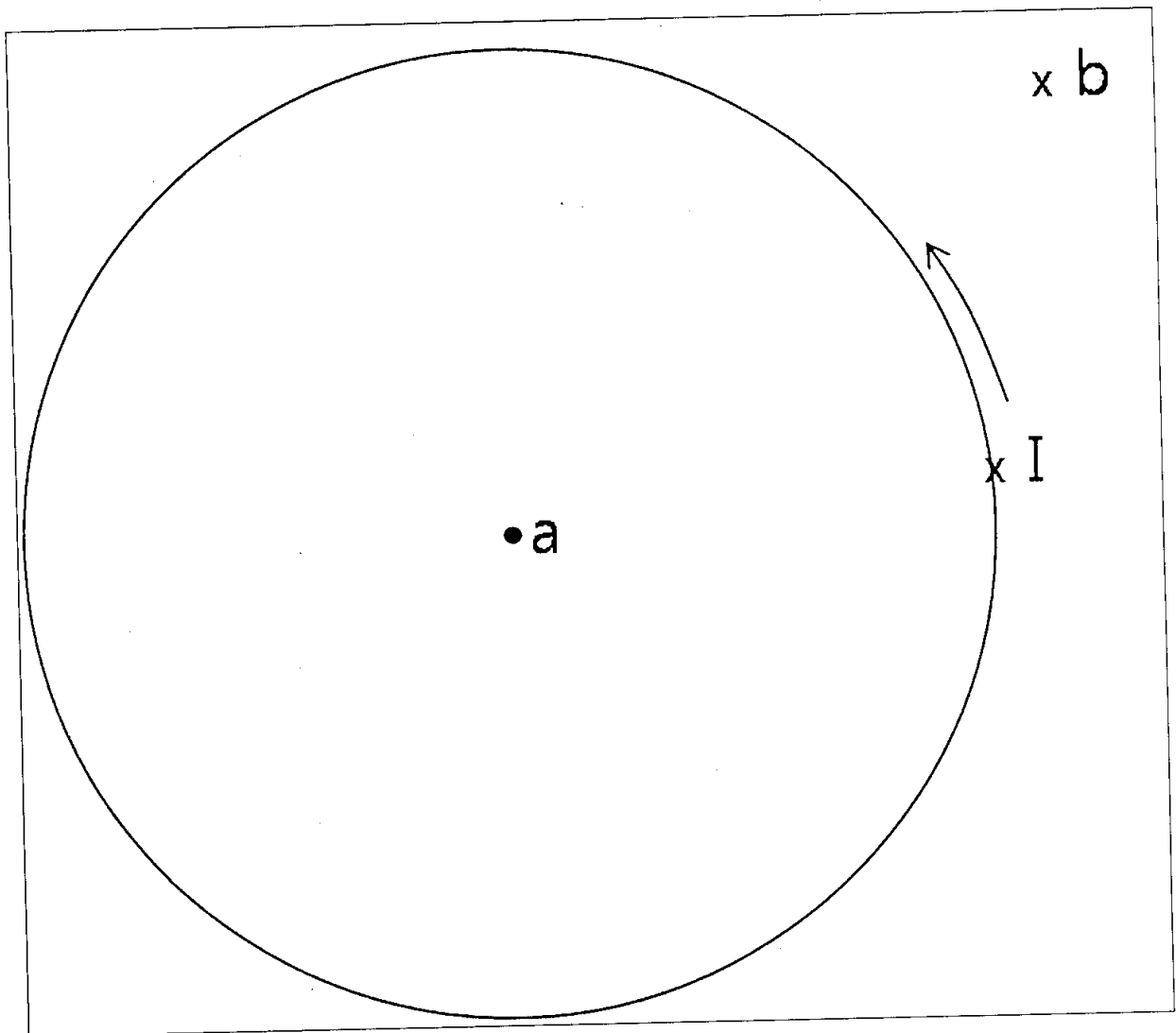
칸트는 철학을 하기 전에 물리학을 공부했으며, 그의 '순수이성비판'은 뉴턴의 역학적 이론과 절대적 시간공간을 근본부터 해명하는 과학철학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의 이율배반에 관한 논의는 뉴턴역학과 절대적 시간공간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나온 오늘날의 지식으로 보면 논의 전체가 타당성을 잃었고, 논리적으로는 아무리 복잡하고 정교해보여도 내용이 틀린 것이다.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의 교훈은 칸트처럼 위대한 철학자가 심오한 사색을 하더라도 그 시대 과학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당시 과학이 제시하는 시간,공간,물질,운동

등의 세계관을 전제로 하여 사색과 논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늘날에도 역시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언어와 논리로 이 세계와 우주에 대하여 사색을 하고 논의를 할 경우 현대과학을 부정하면서 전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현대과학을 인정하고 그 전제하에 논의를 하면, 당연히 현대과학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칸트의 이율배반을 읽고 감탄하는 점은 그의 논리적 전개는 과학적으로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에 대한 '순수이성비판'적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고 탁월하다는 것이다. '우주가 유한이다 (Thesis)'와 '우주가 무한이다 (Antithesis)'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우주가 객관적 실상이다' 즉 우리 인식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객관적 실체 (물자체)라고 볼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공론 (空論)에 불과하고 우리가 멋대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주가 유한이나 무한이냐는 우리가 인식하는 눈앞의 현상적 세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관찰하는 세계에 대한 것인바, 우리는 결코 총체를 순차적 관찰의 확장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논의 자체가 경험적 타당성의 한계를 넘어선 순수이성의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의 유한 무한은 상호모순이 아니라 변증법 (dialectical)적 상대에 불과하다. 실은 유한하다는 것이나 무한하다는 것이나 둘 다 틀린 것일 수 있으며, 경험적 현상에서는 그 어느 쪽도 아닐 수 있다. 상대성 이론은 칸트의 이 주장을 실제로 보여준 셈이다.

'우주가 유한하다와 무한하다'가 논리적 모순 (analytical contradiction)으로 보는 것은 우주를 객관적 실상으로 가정할 때 나오는 공론 (空論)에 불과하다. 우리가 '인식경험하는 현상의 총체로서의 우주'라는 개념은 우리의 이성이 타당성이 없는 허구를 생각하는 것이므로 이 문제는 변증법적 (dialectical) 상대에 불과하며 따라서 우주란 인식되는 현상이 아니므로 둘 다 틀린 진술이 될 수 있다. 칸트의 우주의 유한 무한 논의 결론은 그의 탁월한 식견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순수이성비판'이 뉴턴적 세계관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훌륭한 고전으로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3.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적 관점

칸트의 탁월한 식견과 면밀한 철학적 논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율배반에 대한 논의 대부분은 상대성 이론의 출현으로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사실 그의 정밀한 논리의 전개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것은 틀린 세계관을 가지고 억지로 맞추어 나간 때문이 아닐까 한다.

무엇보다도 우주는 유한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적 이론과 관찰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는 유한하며, 계속 팽창하며 커지고 있다. 팽창속도가 점점 더 가속되어 한 없이 커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칸트의 정립(Thesis)에 해당하는 것이 실제 우주로 있는 것이며, 이율배반의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칸트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오늘날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주가 유한하면 그 우주 밖에 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크기가 유한한데, 그 바깥은 없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공처럼 크기가 있는 물체는 반드시 그 바깥 빈 공간으로 둘러싸여있다. 예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수학적으로는 공 그것만 있고, 그것을 둘러싼 빈 공간은 없는 기하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것을 벗어난 다른 기하학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칸트가 죽은 얼마 후에 독일의 수학학자 리만이 만들어낸 '리만 기하학'이 바로 이런 공간을 다루는 것이다.

'리만 기하학'은 휘어진 공간을 다루는 수학이다. 이런 휘어진 공간 중에는 우리의 경험을 벗어나서 유한하면서도 그 바깥이 없는 공간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우주는 어떤가? 아인슈타인은 '리만 기하학'을 써서 그의 상대성 이론을 수학 방정식으로 만들었고, 시공간은 휘어져있으며, 유한하고 바깥이 없는 우주가 가능함을 1920년대에 보였다. 그 후 천문학과 물리학의 발달로 21세기인 현재는 우주는 유한하며 계속 팽창한다는 '대폭발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한하고 바깥이 없는 흰 우주를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아주 간단하게 단순화시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 예로 일차원적 우주로 그림과 같이 '원'을 들 수 있다. 이 '원'은 단순화된 가상적 우주의 그림인데, 내가 있는 곳을 I라고 하자. 내가 이 우주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화살표따라 가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 간다면 제 자리로 돌아온다. 이 우주가 유한하기 때문이다. 그림 설명에서 보듯이

[일차원 우주 모형. 원은 우주를 나타낸다. I는 내가 있는 곳이고, 나는 화살표따라 우주여행을 갈 수 있다. 계속 가면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a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b는 우주의 바깥이 아니다. 이 '원'외에 다른 안과 바깥은 우리가 이렇게 밖에는 그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허구이다. 우주는 '원'뿐이고, 나머지는 우리의 사고능력의 특성때문에 도입된 허구이다]

우주는 '원'뿐이고, 나는 이 원을 따라 운동할 수 있을 뿐 원의 바깥이나 안으로는 갈 수 없다. 이유는 이 원의 안과 밖은 실제로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고능력의 한계 때문에 안과 밖이 없는 원 그 자체만 따로 그리거나 보는 능력이 없고, 반드시 이 허구적인 그림밖에 못 그린다.

우주가 유한하면, 끝까지 날아가서 그 바깥을 보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것은, 이 원외에 허구인 바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사고능력의 특성 때문이다. 우주가 유한해도 끝까지 날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자리로 돌아올 뿐이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도 결국 제자리에 오는 그런 기하학이다.

칸트가 제 아무리 정교하고 치밀한 논리를 전개했더라도 그의 우주론에 관한 형이상학은 공론에 그치고 말았다. 이유는 리만 기하를 모르고, 유클리드 기하적 공간 범위에서 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우주의 유한성과 무한성에 대하여 논리적 모순으로 보지 않고, 변증적(dialectic) 상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우주의 실상은 정립(Thesis)이든 반정립(Antithesis)이든 둘 다와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고 한 점, 즉 우주 개념에 관한 '순수이성'의 오류를 비판한 것은 탁월한 안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현대 물리학적 유한우주론이 최종적 진리라고도 할 수 없다. 과학은 발전하므로 당연히 다른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대 발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우주론은 물질만 생각한 우주이고, 인간의 정신

이나 영혼. 또는 허공법계와 같은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이 세계의 모든 것의 총체라는 우주의 정의와 이미 모순되고 있다. 따라서 형이상학적 공론뿐만 아니라 물리학적 이론까지도 진리라고 믿어서는 안된다. 이런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침묵을 숙고할 준비가 된 셈이다.

4. 고전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침묵

형이상학은 서구철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인류문명에 공통된 주제라 할 수 있다. 고대 인도에서도 삶과 만상의 근원을 알고자하는 노력과 논의는 치열하였다. 인도철학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리그베다 (Rig-Veda)' 시대에 이미 '창조자'와 같은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통 바라문교의 브라만 (Brahman)-아트만 (ātman) 사상과 이에 반기를 든 사문 (śramaṇa)들의 여러 가지 사상이 백가쟁명을 하고 있었다. 범야일여론 (梵我一如論), 유물론, 숙명론, 회의론, 도덕부정론, 자이나교 사상 등이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하여 맹렬한 논쟁을 하였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런 문제를 부처님께 묻게 되었고, 이에 대한 부처님의 견해가 '부처님의 침묵'이란 말로 널리 회자되었으며, 고래로 수많은 논의와 해석이 제기되어왔다. '우주가 유한인가 무한인가?'라는 질문도 대표적 형이상학적 주제로서 이를 다룬 내용이 '중아함경' 중 '전유경 (箭喻經)', '장아함경' 중 '청정경 (淸淨經)'과 '범동경 (梵動經)'이다.

부처님은 '우주가 유한인가 무한인가?'를 비롯한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를 들었던 답을 하지 않으셨으며, 이를 '부처님의 침묵'이라 한다.

"어떤 사람이 몸에 독화살을 맞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친척들이 급히 의사를 구했으나, 그 사람이 '나는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화살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등을 알아야 하므로 화살을 뽑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 비유의 해석에 관하여 많은 의견이 있어왔다. 이 인용구절만 얼핏보면 쓸데없는 생각 말고 현실생활에나 충실하라고 하면서 형이상학적 사고들을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주가 유한인지 무한인지 답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전유경'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나 자신의 본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바른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지 우주와 자신의 본성에 대하여 연마하지 말라는 뜻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우주는 유한이거나 무한이거나 또는 둘 다 이거나 둘 다 아니거나' 등의 질문에 대하여 침묵하는 6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 ① 비의상응 (非義相應): 우주의 지식과 어긋남 [인식론]
- ② 비법상응 (非法相應): 우주의 실상에 어긋남 [존재론]
- ③ 비범행본 (非梵行本): 수행의 근본이 아님 [가치론]
- ④ 불취지 (不趣智): 참된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함 [인식론]
- ⑤ 불취각 (不趣覺):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함 [존재론]
- ⑥ 불취열반 (不趣涅槃):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함 [가치론]

'전유경'에서 전하는 이 6가지 이유는 서구철학적 표현을 쓴다면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의 그 어느 측면으로 보아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잘못된 생각 (우주는 유한인가 무한인가)을 하는가에 대하여 '청정경'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이 모든 사건은 단지 말만 있을 뿐이어서 함께 논의할 만한 내용이 없다"

이는 단지 우리 범부중생들의 제한된 지식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말장난에 불과하며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범동경'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질문에 빠지는 것은 과거 경험에 바탕한 추론이거나, 분석적인 논리에 바탕한 연역적 추론이거나, 또는 변증법적 추론에 의지하여 우주의 실상을 떠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칸트의 '이율배반'에 유사한 점이다. 즉, 경험적 현상의 인식을 초월한 순수이성의 주제는 필연적으로 공리공론에 이를 뿐 실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제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부처님 침묵의 이유들을 고찰해보자. 칸트를 비롯하여 상대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상적 제한된 경험에 바탕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 범위에서 우주를 상상할 수밖에 없다. 유클리드 기하학이란 제한된 지식에 근거하여 사고를 전개하면서, 그 제한성을 알아채기가 어렵다. 한정된 지식에 불과하다고 인정은 하더라도 여전히 유한하지 않으면 무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 안그러면 도대체 논리적으로 모순인데 어떻게 달리 될 수 있단 말인가? 변증법을 배운 사람은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 대립일 뿐이고, 따라서 '유한이기도 하고 무한이기도 하다 (有限無限)', '유한도 아니고 무한도 아니다 (非有限 非無限)'라고 알 듯 모를 듯한 복잡한 언어유희를 펼칠 수 있다. 실제로 '청경경·과·범동경·에는 질문이 '우주는 유한이다', '우주는 무한이다'와 더불어 이 두 가지를 더해 4지 선다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대성 이론 또는 리만 기하학을 아는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유한 무한 선택이든 4지 선다형이든 또는 비와 무자를 몇 번씩 부치는 비틀기를 하든 간에 이러한 질문과 생각은 우주의 실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망념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아무리 오래 생각을 해도 이런 식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게 된다.

"우주의 끝이 있다면 그 끝 다음에는 무엇일까?" "우주가 태초에 시작되었다면 그 전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하고, 이리저리 복잡한 생각을 해봤자 그것은 우주에 대한 상대론적 지식을 가질 수도 없고 [非義相應], 우주의 실상을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非法相應], 따라서 지기가 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의 근본을 반성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올바른 수행을 할 수도 없게 된다 [非梵行本].

상대성 이론이라는 발전도상의 과학적 지식에서만 보더라도 부처님의 침묵은 정당하며, 그 이유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현대과학은커녕 근대과학조차 없었던 부처님 시대에 헛된 질문들 (우주의 유한무한, 영혼의 사후 존재여부, 신의 문제 등)에 매달려 온갖 헛된 생각을 하고 매우 진지하게 열심히 격론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어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침묵 외에 무슨 다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되돌아보고 [迴光反照] 그 생각이 나오기 이전을 보라 [涅槃]고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상대성 이론 역시 극히 제한된 인간의 경험에 바탕한 자연관에 불과하다. 물질과 정신을 통합하여 볼 수 있는 세계관에는 가까이 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부처님이 깨친 세계의 실상을 우리는 과학이나 언어로 알 수는 없다. 과학의 발전은 상대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잘못 생각했는가를 알게 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확실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재 무슨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그 근본을 보라, 생각하는 놈 그 놈에 대해 생각하라)을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과학은 아마도 이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 말: 중도 (中道)

우주는 유한인가 무한인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인간은 사후 영혼이 있는가? 등의 궁극적 질문은 형이상학의 주제이다. 칸트는 이런 문제는 경험과 인식을 벗어난 순수이성의 잘못된 추론에서 분석적으로나 변증법적으로나 해결할 수 없는 공론에 이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상대성 이론의 출현으로 우주의 유한/무한 문제는 칸트의 논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험과학적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유한 우주라 하더라도 끝이나 바깥은 없고, 팽창하더라도 어떤 빈 곳을 채워가며 늘어나는 것이 아닌 우주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우주론은 형이상학의 주제거나 순수이성의 관념이 아닌 과학적 관찰 대상으로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는 일시적 착각일 뿐이라고 본다. 우주는 그 정의상 총체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생명, 마음, 정신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대론적 우주에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다. 우주를 논하는 이 마음이 빠진 우주가 과연 우주일까? 과학은 그것이 깨질 때까지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 우주론의 잘못된 점도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우주, 신, 영혼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의 우리들이나 연역적 논리나 변증법적 추론이나 경험적 과학에 바탕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려는 강한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방식으로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실상을 깨칠 수 없다고, 그리고 올바른 수행을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주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하셨는가? 그 방법론을 중도 (中道)라고 하였다. 그래서 불교사상은 중도사상이라고 하며, 이는 고전불교에서 대승불교로 그리고 다시 원불교로 나아가면서 면면히 이어지는 법맥이다.



본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